

◆ KOEMA 消息 ◆

「東·西南亞 輸出促進團」1억9천만\$ 수출상담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한국전력공사 후원하에 파견한 동·서남아 수출촉진단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 지역에서 241개 업체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억9천만\$이라는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번 수출촉진단은 진흥회 任寅柱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LG産業(株) 등 9개사에서 총 17명이 파견됐는데 이들 지역은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 진전으로 대규모 전기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견되어 바이어들의 구매욕과 관심을 고조시켰다. 수출촉진단은 현지 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환경을 조사하는 외에도 각국의 전기관련기관 및 단체를 방문, 국가별 전원개발계획 및 중장기 전력기자재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인도 전기전자공업협회(IEEMA)와는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 앞으로 양국 간 전기공업발전을 위한 협력강화와 정보 및 기술교류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편, 진흥회는 앞으로도 수출 유망지역을 선정, 지속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여 중전업계의 국제화와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번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그동안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한 각국의 단체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도 적극 추진하여 해외업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東南亞 電機工業 市場動向」발간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공업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발전시설건설 등으로 중전기기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5개국에 대한 우리 중전업계의 시장진출의 참고가 될 국가개황, 전력산업동향, 전기공업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서남아 전기공업 시장동향』에 이어 제 2집으로 『동남아 전기공업 시장동향』을 발간하였다.

이번 발간된 자료에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의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변환장치, 개폐기, 차단기, 배전제어장치, 전선등 주요 중전기 품목의 수요동향과 경쟁동향은 물론 입찰기관과 품목별 수입업체 리스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이 지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관련업체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간담회 개최

'95. 9. 17~23(7일간)까지 정부·한전·업계·진흥회 등 39명으로 구성된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여 동경·중부·관서 전력회사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및 전력산업동향 파악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진흥회에서는 동 촉진단 파견에 따른 후속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업계, 한전, 정부 기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 15(수) 무역크럽 51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 전력회사 구매담당자 및 기술자를 초청하여 우리 업체의기자재생산과정, 성능시험과정, 품질 검사과정 등을 직접 보여 줌으로서 전력기자재 납품방안을 모색하고 「'96/'97 Korea Electrical Industry」 발간과 연계하여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엄선, 일어판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일본 전력회사 및 중전업체에 배포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전력기자재 규격집 및 사양, 전력기자재 신기술 동향자료, 전기기자재 관련 통계자료를 진흥회에서 수렴하여 비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사중 대일 사무국 개설업체를 활용하여 대일전력기자재 수출 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일본내 A/S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하였다.

한편 동경전력회사등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96 서울 국제종합전기기전에도 대규모의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와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